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찬 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찬 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도교수 오지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찬미

김찬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7
II. 이론적 배경	8
A.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8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8
2.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13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15
B.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과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16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16
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과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19
III. 연구방법	21
A. 연구대상	21
B. 측정도구	23
C. 연구절차	26

D. 분석방법	26
IV. 연구결과	27
A.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27
B.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 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분석	28
C.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에 의한 유아의 실행 기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30
V. 논의 및 결론	33
참고문헌	38
부록	53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27
<표 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29
<표 4> 매개효과 유의성검증	29
<표 5>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 증	31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31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3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7
[그림 2]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도와 놀이참여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32

ABSTRA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Kim ChanMi

Advisor : Prof. Oh, Ji Hyun,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on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To this end, a moderated mediating model was applied, and through this,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re comprehensively examined to help them understand in depth. This study was conducted on fathers with childhood children aged 3-5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30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re significant factors for predicting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especially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ffects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by mediating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In addition,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according to level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rough this, it suggests that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is an environmental factor that is highly related to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 그로 인한 행동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유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기술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쳐,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좋아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Eisenberg, 2001). 이와 같이 정서조절 능력은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아가 타인과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서조절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해 가는데, 특히 3~5세 시기는 유아들의 언어능력과 대뇌의 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있다(Cole et al., 2008). 전두엽은 정서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역으로, 타인의 감정 인식, 현실 판단,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은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이 가능해진다(Gluck et al., 2011).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데, 유아기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된 상호작용의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만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충동을 조절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부모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 외적으로 조절되던 정

서조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내적인 정서조절로 변화하며 발달해 간다(Eisenberg, 1998).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정서수용태도 등 어머니 대상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유아의 양육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시간은 적지만, 아버지는 유아의 발달에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시간 안에 질적인 보충이 이루어져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유아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아버지 양육요인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선희, 2001; 오남희, 2008; 채영문, 2010; 문예은, 도현심, 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양육행위로(최혜순, 이미현, 2015), 자녀의 양육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는 서로 다른 자극은 부모 한쪽에서만 받는 자극에 비하여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효과적이다(Rinaldi & Howe, 2012).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돌보기 및 지도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야외 여가활동참여는 취학 전 아동의 분노-공격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데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Torres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 그리고 또래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한정현, 심미경, 2011; 류희정, 이진희, 2013; 윤서희, 성지현, 2014;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 및 배려하고,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하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배문주, 2005; 지진미, 2018).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왜,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편이다(이영환, 2016).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때는 상황의 선택, 주의, 평가 등의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Gross & Thompson, 2007). 또한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적 문제 상황에서 선택된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효과적인 전략을 아는 것으로(Ivcevic & Brackett, 2014), 정서의 인지적 이해와 행동적 기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서는 유아의 인지기능인 실행기능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며, 정서와 인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임을 반영한다. 여기서 실행기능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Anderson & Reidy, 2012). 실행기능은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분된다(Gioia et al., 2000).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기능은 정서발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이다(김지은, 2012). Joormann과 Gotlib(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억제 능력이 정서조절을 위한 중요한 기제임을 밝혔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은 정서적 자기조절(최은아, 2013), 정서통제능력(강도연, 2015),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슬아, 송현주, 2014)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행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Moriguchi, 2014). 유아기에는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기술을 내면화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시작되므로(Landry et al., 2002), 부모의 양육참여는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지니는 환경적 요인이라 사료된다. 예를들면, 이윤정 외(2014)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문주(2005)의 연구 결과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유아의

충동억제와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란희와 김선희(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애정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상기한 관점을 근거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주로 양육과 관련한 상호작용이 빈번한 반면, 아버지는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Bronstein & Cowan, 1988; Lamb, 2010; 김은화, 2011)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볼 때 아버지의 경우 놀이참여 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통해 유아는 인지적 자극을 받거나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데(Tamis Lemonda et al., 2004), 이때 유아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규칙을 지키고 주의를 집중하거나 전환해 보는 등 실행기능이 촉진된다(최소연, 2017; 차미숙, 김광웅, 2018; 백선정, 김희화, 2020). 선행연구들(Kopp, 1982; Ward, 1994; 배문주, 2005; 유란희, 김희선, 2017; 백선정, 2020; 김시은, 김현수, 2021)을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 및 생체 리듬의 외적 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전두엽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실행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는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가 상호작용하여 실행기능 향상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강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버지의 놀이행동이 똑같은 양상으로 자녀의 놀이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전

숙희, 이희선(201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정서조절능력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가 단순히 놀이참여에만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버지의 바람직한 태도와 더불어 놀이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놀이에는 놀이의 특성 중 즐겁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모가 자녀와 놀이를 하고 싶고 즐겁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의 놀이에 참여할 때는 자녀의 놀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추론된다(김리진, 이소연, 2018).

놀이참여태도란 자녀가 원하고 주도하는 놀이를 따라가 주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리진, 이소연, 2018). 홍혜미(201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기심, 상상력 등을 활용하며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고, 아버지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한 높았다고 하였다(최화자, 이하원, 2019).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은 부모가 단순히 놀이에 자주 참여하는 것만으로 발달된다기보다, 부모가 유아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져 어떠한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백선정, 2020).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놀이 상호작용에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질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질적인 놀이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결과(손애리, 2022)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상기한 관점을 근거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또는 자주 놀이에 참여하는가 등을 측정하는 양적 놀이변수가 아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를 측정하는 놀이의 질적 부분인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즉, 통합모형인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조절된 매개모형과 같은 통합모형은 선행이론이 부족할 경우 회귀분석적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된다(정선호, 서동기, 2016).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고려해 볼 때 이론적, 경험적 배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귀기반 접근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통합적인 이론모형을 탐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떻게, 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B.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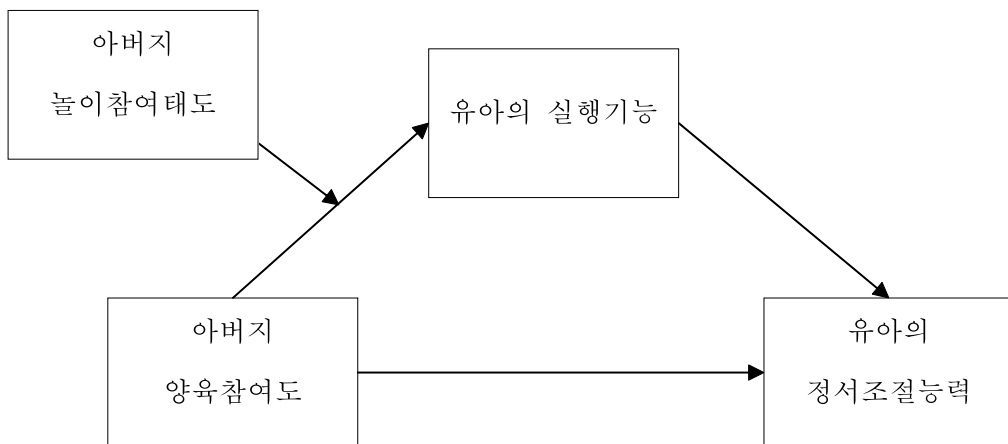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의 실행기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은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기술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쳐,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좋아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Eisenberg et al., 2001). 특히, 유아기에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해가는 중요한 시기(Scharfe, 2000)로 정서발달은 유아기에 발달시켜야하는 주요한 능력(Denham et al., 1997)이다.

일반적으로 정서란 개인과 집단이 느끼는 행복, 기쁨, 슬픔, 공포와 같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성향으로, 인간의 생존과 환경에의 적응, 행위의 동기유발과 목표설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한 개념(고윤희, 2012)으로 본다. 유아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유일하게 정서를 사용하는 신생아기에서 출발하여 영아기에 사회적 미소(social smile)를 짓고 양육자와의 관계를 참조하여 행동의 결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가 발달되어 간다(Izard et al., 1995). 유아는 점차 여러 가지 정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는 유지하고 지속하며, 부정적인 정서는 억제하거나 소거해가는 능력을 배워나간다(김정은, 신유림 2015). 정서는 생존과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유아가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스스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여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능력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먼저

Gottman과 Katz(1989)는 정서와 관련된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고 욕구에 대한 충족을 지연시키거나 조절하는 능력으로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정의내렸다. Kopp(1989)는 기쁨, 분노, 슬픔, 공포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나 과정이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정서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요구가 주어질 때 분노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Brenner와 Saloney(1997)는 정서의 생리적·생화학적인 영역, 인지적인 경험상의 영역, 행동적 표현상의 영역 등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정서가 시작되거나 수정 및 유지되도록 하는 반응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Thompson(1994)은 내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상태와 연관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을 인식하고 그것의 강도와 지속기간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Eisenberg와 Morris(2002)도 정서조절능력은 목표달성을 위해 정서적인 자극이 발생했을 때 강도 및 표현의 정도를 조절하고 유지하며 통제하는 능력으로, 내적인 과정과 외적인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Denham(2006)은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Calkins(1994)는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정서적인 각성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며 대인관계 측면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 그로 인한 행동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해가는데, 유아기인 3~5세 시기에는 유아들의 언어능력과 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해가고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Cole et al., 2008). 변연계와 전두엽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정서조절의 신경회로가 형성되는데, 생후 15개월에 변연계는 해부학적으로 성숙을 보

이며(Rainwicz, 1979), 만3~6세까지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다가 아동기에는 발달의 변화 추이가 다소 완만해진다(Greenberg & Snell, 1997).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두엽은 정서조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즉,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현실판단을 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타인과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복잡한 정서와 상황 인식이 점점 명확해지며(Bronson, 2000; Lemerise & Arsenio, 2000; Denham & Kochanoff, 2002; 김창윤, 2007; 김유미, 2007),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할 수 있고 적절한 정서표현이 가능해진다(Gluck et al., 2011).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의 기질에 근간을 두지만 유아를 둘러싼 주변의 인적·물리적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충동을 조절해보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발달되며,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현적으로 나타났던 행동이 점차 내현화되고 조절된다(Kopp, 1982; Eisenberg et al., 2004). 부모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조절되던 외적인 정서조절에서 시작하여 점차 연령이 증가하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내적인 정서조절로 발달해가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상황에 맞춰 자신의 정서적인 표현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기도 하고, 점차 인지적 능력이 발달해가면서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을 달래는 인지적 전략을 사용(박성연, 2013; 최혜정, 이동귀, 2015)하기도 하는 등 폭발적인 행동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많은 연구들은 이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 특히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형성되어 간다.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Kopp(1982)는 유아가 사회화 과정에

서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가 유능하게 정서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아는 출생 후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정환경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동안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가장 많이 지도하고 모델링해주며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Eisenberg et al., 1998; 정은주, 2005)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unn과 Brown(1994)은 정서조절능력이 환경 안에서의 모방과정을 통해 사회화된다는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서가 분화·발달하는 유아기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모 요인이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와 같이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역할로 변화하였다(나현정, 최미숙, 2017).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최경순(1993)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 행동이 양적 시간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일상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로 분류하였다. 이후 이영환 외 연구(1999)는 양육참여를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최혜순과 이미현(2015)은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란 자녀를 양육할 때 마주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양육행위라고 정의하며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지원, 자기성장을 하위요인으로 하여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버지는 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유아의 성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역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양육 참여자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Lamb(1991)의 연구 이후 진행된 아버지 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아버지의 행동과 가치관, 태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정, 2005),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할수록 자녀는 내적 통제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 이인수, 1998).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김은정, 2002; 한미자, 2003; 박일새, 2012). 황영미와 문혁준(2006)의 연구에서는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여가생활, 생활지도, 인지적 성취지도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들의 인지능력과 감정이입능력이 발달되었으며(송민선, 2009), 정서조절 능력 및 또래유능성과도 정적 상관이 있음 또한 밝혀졌다(최미숙, 송순옥, 2014).

이러한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유아 양육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시간은 적지만 적은 시간 안에 질적 보충이 가능하여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으며(정선희, 2001; 오남희, 2008; 채영문, 2010),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시간이 어머니보다 적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유아의 발달에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는 서로 다른 자극은 부모 한 쪽에서만 받는 자극에 비하여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효과적이다(Parke & Tinsley, 1981; Rinaldi & Howe,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아버지가 주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어머니는 주로 돌봄의 형태 위주로 양육하는 반면 아버지는 주로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관람, 여행, 책을 읽어주는 등의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권정윤 등 2010),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신호나 행동에 대한 반응성과 민감성

이 낮았다(Lovas, 2005; Kochanska & Aksna,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동, 가치관, 태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김정, 2005), 아버지의 양육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돌보기 및 지도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수용도가 높게 나타났고(황영미,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야외 여가활동참여는 취학 전 아동의 분노-공격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데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Torres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 그리고 또래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한정현, 심미경, 2011; 류희정, 이진희, 2013; 윤서희, 성지현, 2014;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유아의 타인의 정서를 인식 및 배려하고,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하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배문주, 2005; 지진미, 2018). 이와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자기조절 영역의 발달과 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시은, 2021).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의 형태나 반응은 어머니와 다른 질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위영희, 1983; Bronstein & Cowan, 1988; Lamb, 2010).

2.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황의 선택과 수정, 주의, 평가, 반응의 인지 전략이 필요하며(Gross & Thompson, 2007).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정서와 인지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용한다(Cacioppo & Berntson, 1999). 정서조절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적 각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적 각성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정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유지시키고 조정하는 것이다(조성희, 2015). 또한 성공적인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적 문제 상황에서 선택된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효과적인 전략을 아는 것(Ivcevic & Brackett, 2014)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서의 인지적 이해와 행동적 기능까지를 정서조절능력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유아는 내면과 행동의 통합적 조절이 필요하여 정서는 실행기능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며, 정서와 인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임을 반영한다.

실행기능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Anderson & Reidy, 2012). Gioia와 동료들(2000)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5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억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항적,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간섭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을 제한하는 자기조절 기능이고, ‘전환’은 상황의 요구에 맞게 사고과정이나 주의, 행동을 바꿔 새로운 활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체계를 재배치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의미한다. ‘감정조절’은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적 동기 측면에 해당하여 전두엽의 다른 하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인지와 함께 작용하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작업기억’은 새로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가 장기기억의 지식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며, ‘계획·조직화’는 문제를 예측하고 목표를 세워 미리 문제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계획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대안을 생각하거나 선택하고, 순서와 위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백현주, 2019).

이러한 실행기능은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적

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발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이다(김지은, 2012). 정서는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의 동기적 측면에 해당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인지와 함께 작용한다(Bell & Wolfe, 2004). Joormann과 Gotlib(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억제 능력이 정서조절을 위한 중요한 기제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은 정서적 자기조절(최은아, 2013), 정서통제능력(강도연, 2015),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슬아, 송현주, 2014)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아의 실행기능은 양육 및 교육적 지원을 통해 연습의 과정을 거쳐 증진될 수 있으며(이현진, 2013),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Moriguchi, 2014).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다양한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 체계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실행기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초 단계로 여겨진다(Carlson, 2003). 양육과 실행기능 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율성을 지지하고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경우 주의집중력과 행동억제와 같은 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강압적이고 간섭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과제집중력이 낮다고 보고되었다(Granziano, 2009). 이윤정 외(2014)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문주(2005)의 연구 결과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유아의 감정조절 능력 및 충동억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란희와 김선희(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애정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기술을 내면화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시작되므로(Landry et al., 2002), 부모의 양육은 실행기능에 큰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적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으로 가는 매개모형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B.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기는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정서적 발달의 기반이 되는 시기로(김보민, 2006), 이 시기의 아동들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놀이 활동을 한다. 유아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그에 맞는 놀이를 찾아서 하며, 유아마다 놀이를 통해 다른 행동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최유석, 임지영, 2021).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간다(Fein, 1981). 유아들에게 놀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자 생활이며(김경은 등, 2020; 광경화 등, 2020), 내적으로 동기화 된 자발적인 활동이자 표현인 것이다(백승선 등 2020). 또한 놀이 장면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겪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후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간다.

부모는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여 다양한 발달영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자녀의 놀이를 계획해 주고, 놀이의 수준을 더 높여주기도 한다(원희영, 1998). 이때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머니처럼 양육과 보호를 하기보다 놀이상황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Bronstein & Cowanm 1988; Lamb, 2010; 김은화, 2011). 이때 아버지는 놀이 과정에서 규칙에 대하여 서로 설명하고, 자녀의 마음을 읽을 기회가 많아져 유아가 건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이배, 김경숙, 2013). 문성영과 심성경(202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기능놀이, 신체놀이, 게임놀이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문제해결력이 높아지고, 아버지가 신체놀이와 기능놀이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아버지와 놀이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론, 학습관련 기술 등과 같은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다(노윤미, 2006; 최소연, 2017).

이와 같이 유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이며 생활인 놀이가 아버지의 양육 과정 중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놀이가 자녀와의 주된 상호작용방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뿐만 아니라 놀이상호작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부모의 행동이 똑같은 양상으로 자녀의 놀이를 촉진하지 않으며 그 태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 놀이참여태도란 자녀가 원하고 주도하는 놀이를 따라가 주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리진, 이소연, 2018). 부모의 놀이참여태도는 유아가 놀이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때 부모가 이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인 ‘민감하게 인지하기’, 부모가 놀이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유아와 감정을 교류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인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백선정, 2020). 홍혜미(201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기심, 상상력 등을 활용하며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고,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이 적극적일수록 유아의 자기평가능력이 높았으며(송경은,

2013),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은 부모가 단순히 놀이에 자주 참여하는 것만으로 발달된다기보다, 부모가 유아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져 어떠한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백선정, 2020).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되면 유아가 자기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완전매개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놀이 상호작용에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질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질적인 놀이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손애리, 2022). 이처럼 아버지는 양적으로 놀이하는 시간만 많이 갖는 놀이 상대자이기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질의 놀이 상대자가 되어야 한다(이원영, 1998). 또한 평일을 기준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한 시간 이상, 아버지는 30분에서 한시간 미만으로(김영덕, 2016)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 놀이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놀이 상호작용의 기회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며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이참여의 질을 점검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최근 연구들은 놀이참여수준보다 놀이참여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김영덕, 2016; 문성희, 2019;곽경화 등, 2020).

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과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가 놀이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규칙, 따스한 정서를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하여 또래와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익히게 하여 자연스럽게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김경희, 2021), 유아의 자기정서, 감정조절, 충동억제, 타인 정서 인식 및 배려를 증진시켰다(최혜순, 2011; 김순희, 김정숙, 2018).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 및 생체 리듬의 외적 조절자의 역할을 하며, 전두엽의 발달을 촉진시켜 실행기능의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가 상호작용하여 실행기능의 향상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강화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아버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이영환, 2016). 또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궁극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이 낮아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유아의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 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놀이에 참여하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놀이에 참여하는가 등을 측정하는 양적 놀이변수가 아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를 측정하는 놀이의 질적 부분인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5세 아동들의 아버지 총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 3-5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아동은 언어능력과 대뇌의 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해가고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Cole et al., 2008).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은 유아기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며(Albert, 2012), 아버지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놀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극을 유아에게 제공한다. 이에 해당연령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에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류	n, %
아버지 연령	만20~29세	4(1.3)
	만30~39세	158(51.1)
	만40~49세	141(45.6)
	만50~59세	6(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0.3)
	고졸	25(8.1)
	전문대졸	44(14.2)
	대졸	187(60.5)

	대학원이상	52(16.8)
맞벌이유무	맞벌이	146(47.2)
	외벌이	163(52.8)
자녀수	1명	116(37.5)
	2명	161(52.1)
	3명	29(9.4)
	4명이상	3(0.9)
출생순위	첫째	181(58.6)
	둘째	111(35.9)
	셋째	15(4.9)
	넷째이상	2(0.6)
자녀성별	남	154(49.8)
	여	155(50.2)
자녀나이	3세	74(23.9)
	4세	114(36.9)
	5세	121(39.2)

B.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

아버지 양육참여도 측정을 위하여 기존에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사용된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들을 기초로 이미현(2014)이 개발한 아버지 양육참여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평정자는 유아의 아버지 본인이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은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 자기성장 등 5개 영역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의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도 점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변인별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로는 '놀이문화지원'은 .75, '사회정서지원'은 .74, '교육지원'은 .71, '공동양육'은 .72, '자기성장'은 .7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성장을 제외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2. 유아의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Isquith, Gioia와 Espy의 연구진(2004)이 제작한 유아용 행동 평정 척도 BRIEF-P(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function-Preschool version)를 변안한 서정은, 박혜원(2011)의 척도를 백현주(2019)가 일부 문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3문항으로 억제, 전환, 감정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및 교사 등 아동의 가까운 성인이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억제, 전환, 감정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각 5가지 하위요인은 4점 Likert 척

도로 평가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며 모든 문항은 역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한다.’,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혼란스러워 한다.’,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 ‘두 가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을 질서 없이 놓고 제대로 못 치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요인별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로는 ‘억제’는 .91, ‘전환은’ .87, ‘감정통제’는 .88, ‘작업기억’은 .93, ‘계획조직화’는 .87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7 이다.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 (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능력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변안한 김지윤(2007)의 척도를 박익새(2012)가 유아용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정서통제 및 불안정/부정적 정서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의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정서통제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뜻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불안정/부정적 정서’ 문항을 역채점 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불안해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다른 활동으로 옮겨간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로는 ‘정서통제’는 .74 이고 ‘불안정/부정적정서’는

.8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4.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척도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소연 등(2018)이 개발하여 백선정(2020)이 수정하여 사용한 놀이참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3개의 하위영역(민감하게 놀기, 반응적으로 놀기, 즐겁게 놀기)을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민감하게 인지하기’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2요인으로 수정하였으며, 12, 18, 19번 문항은 삭제되어 총 17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요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와 ‘아이가 놀이할 때 흥미를 보이는 대상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반응한다.’ 등이 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로는 ‘민감하게 인지하기’는 .83,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는 .8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 이다.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2년 7월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EMBRAIN)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EMBRAIN은 15년 동안 이어져 온 기업으로 국내 1,645,934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여 성비,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연구자가 모의로 진행해본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지닌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설문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였으며, 이에 동의한 아버지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09명의 자료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IBM Co., Armonk, NY)과 SPSS Macro version 4.1(Hayes, 201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27을 통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은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 모델 7을 활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이며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r = .72, p < .001$)와 유아의 실행기능($r = .22, p < .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35, p < .0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는 유아의 실행기능($r = .22, p < .001$)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37, p < .0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75, p < .001$)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 값을 산출한 결과 .473 ~ .946 사이의 값으로 모두 1을 넘지 않았고, VIF(Variance Inflation actor)는 1.06 ~ 2.12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2.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72***	-		
3. 유아의 실행기능	.22***	.22***	-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35***	.37***	.75***	-
<i>M</i>	54.39	65.67	191.22	86.20

<i>SD</i>	7.64	8.34	27.14	10.50
-----------	------	------	-------	-------

Note. $N = 309$

* $p < .05$. ** $p < .01$. *** $p < .001$.

B.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단순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절된 매개효과와 기본가정(Muller, Judd, & Yzerbyt, 2005)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ACRO PROCESS model 1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와 구분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정선호, 이동기, 2016; 배병렬, 2021). 즉, Muller 등(2005)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tep 1에 따라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는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조절변수인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 = .01, p = .11, p > .05$), 조절된 매개효과와 첫 번째 가정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MACRO PROCESS model 4를 활용하였고,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예측하였고($\beta = .77, p < .001$),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은 종속변수인 정서조절능력에($\beta = .27,$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총효과($\beta = .49, p < .001$)와 직접효과($\beta = .28,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는 부분매개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간접효과의 계수는 .21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10와 .32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β	SE	t	p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total effect)	.49	.07	6.61	.00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유아의 실행기능 (direct effect)	.77	.20	3.90	.000
유아의 실행기능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direct effect)	.27	.01	18.83	.00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direct effect)	.28	.05	5.37	.000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유아의 실행기능	.21	.06	.10	.32

Bootstrap sample = 5,000

C.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에 의한 유아의 실행기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상호작용항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 p < .05$). 이와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beta = .27, p < .01$). 아울러 조절된 매개지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표 6) 간접효과가 각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의 시각적 도식화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을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함께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하더라도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낮으면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수준에 해당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수준이 1 표준편차 높을 때만 간접효과가 유의하고 놀이참여태도의 수준이 평균인 경우와 1 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는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졌다. 반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평균 또는 낮은 수준

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더 이상 매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유아의 실행기능				
	<i>B</i>	<i>SE</i>	<i>t</i>	95% CI	
				LLCI	ULCI
X: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50	.28	1.77	-.06	1.07
Mo: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42	.26	1.59	-.10	.93
Interaction (XMo)	.04	.02	2.25**	.01	.08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i>B</i>	<i>SE</i>	<i>t</i>	95% CI	
				LLCI	ULCI
X: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28	.05	5.37***	.17	.38
Me: 유아의 실행기능	.27	.01	18.83***	.2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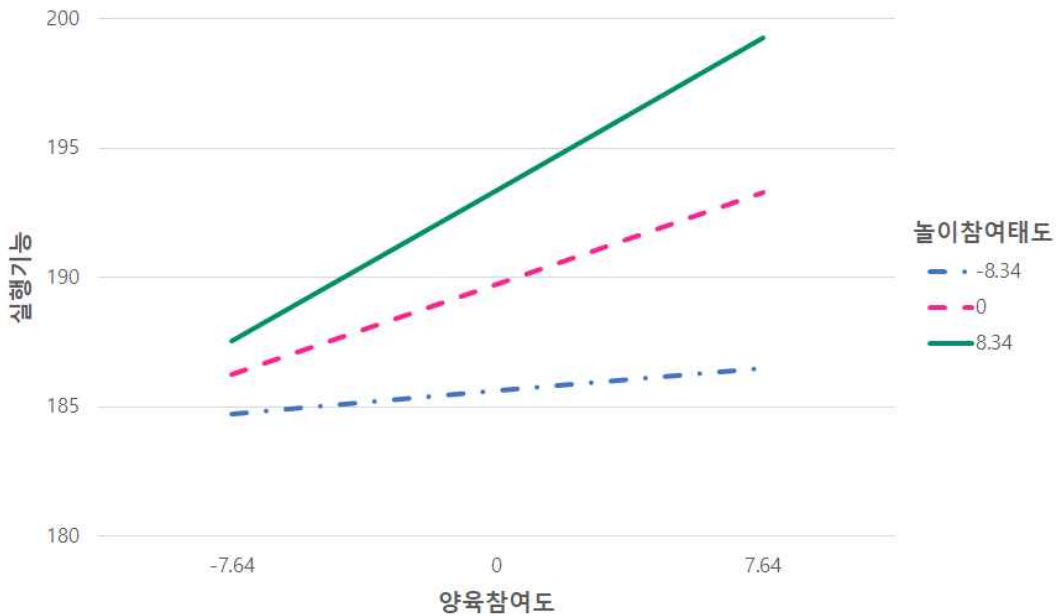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Variable	Index	Boot SE	95% CI	
			LLCI	ULCI
Interaction (XMo)	.01	.00	.00	.02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Variable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1SD	.05	.09	-.12	.23
Mean	.14	.08	-.02	.30
+1SD	.23	.09	.06	.40



[그림 2]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놀이참여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한 매개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나아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를 조절된 매개모형으로서 추가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유아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버지 요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부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으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민감성과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Nicole et al., 2015; Andrew & Rory, 2022)와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의 지연억제가 높을수록 자신을 잘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정서통제능력이 높아지고, 공격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강도연,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가 아동의 사생활은 인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간섭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실행기능 중 정서조절곤란과 부주의를 매개로 사회성 발달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김수연, 2019)와 유사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다시말해 아버지가 유아기 자녀의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유아의 인지적

요인인 실행기능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아는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 등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및 자신의 정서를 활용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정서와 인지요인은 함께 작용하는데(Cacioppo & Berntson, 1999; Bell & Wolfe, 2004),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은 촉진되고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특징은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여행, 관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정윤 등 2010), 이러한 부-자녀 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유아에게 다양한 비계(scaffolding)설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유아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실행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유아가 상황과 목적에 적절하게 방해되는 자극은 통제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이 증진되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먼저,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고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강화효과를 보였다. 다시말해,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하더라도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낮으면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놀이에 자주 참여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이 촉진되며, 아버지가 놀이상황에서 민감하게 인지하는 놀이참여태도와

반응적이고 즐거운 놀이참여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백선정, 2020)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합리적이고 친밀감 있는 양육 행동을 보이면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할 때 유아의 통제능력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전숙희, 2016)와도 맥을 같이한다.

유아는 부모와 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내보고,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배우며 실행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Schaefer & Drewes, 2013). 실행기능 향상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내적능력으로 발달해 가 유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아버지와 놀이하는 환경 속에서 외적으로 조절되는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해보고 해결해봄으로써 실행기능이 향상되고 이는 정서조절 능력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조절변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정서조절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평균 또는 낮은 수준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더 이상 매개하지 못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인지적 기제가 되는 실행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때 아버지의 역할로서 양육참여와 더불어 놀이참여태도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버지가 놀이상호작용에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적이고 즐거운 태도를 빈번하게 보인다면 유아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를 통해 유아의 능동적인 반응 및 몰입을 촉진할 수 있고 유아는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풍부해짐으로써 사고의 전환, 조직화, 계획능력 등 실행기능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다시말해,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

조절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인임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으면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아지고 정서조절능력 또한 향상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간접효과를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아주는 놀이참여태도가 유아의 실행기능 및 정서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낮은 정서조절 능력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유아들의 실행기능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부모의 놀이참여태도를 점검하여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 장면에서 더 효과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부모교육프로그램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버지 대상의 경우 양육기술 위주의 교육내용 또는 유아기 자녀와 놀이하는 미시적인 방법이나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안재욱, 우주영, 2013; 문소라, 2016; 김시은, 김현수, 2021). 그러나 기존에 제시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부모교육에서는 특히 자녀와 놀이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인 반응기술 및 태도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아버지로서 양육효능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자녀 간의 양육참여 및 놀이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참여도와 놀이참여태도 모두 아버지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던 것이 한계였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한 것과 실제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측정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고와 함께 비교하는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된 놀이참여태도는 놀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놀이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관찰도구를 통한 관찰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를 선택하여 실시하였으나, 유아의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이 다양하고, 측정도구 또한 다양하다. 또한 유아의 가정에서와 유아교육기관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정도와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 보고 등 다양한 평정자들과 함께 비교하는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도연 (2015). 유아의 실행기능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희 (2019). 어머니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수안, 여종일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47-67.
- 곽경화, 최진숙, 백승선 (2020).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4(5), 155-173.
- 구현주 (2011).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권정윤,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 (2010). 유아 사회성 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341-358.
- 김정은, 윤미승, 윤정진 (2020).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영역에 따른 또래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3), 191-217.
- 김경희, 김세곤 (2021). 유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양육참여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27, 117-142.
- 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한국아동학회*, 19(2), 65-75.
- 김리진, 이소연 (2018). 텔파이조사를 활용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놀이참여 태도 척도 문항 개발. *한국놀이치료학회*, 21(3), 379-397.

- 김미경 (2016).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놀이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민 (2006). 놀이 유형별 아버지의 참여 수준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외현화 행동문제 발달체적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과 실행기능 곤란. *한국아동학회*, 39(6), 41-56.
- 김수연 (2019).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김경숙 (2018). 아버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 27(1), 63-81.
- 김시은, 김현수 (2021).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 발달특성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16(1), 161-187.
- 김영덕 (2016).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만 2세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김유미 (2007).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67-184.
- 김은정 (200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화 (2011). 아버지와 영유아의 주말 놀이 공유 실태. *한국유아체육학회*, 12(2), 73-87.
- 김정, 이지현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6(5), 245-261.
- 김정민 (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

-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 신유림 (201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및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14(1)*, 219-237.
- 김지은, 신나리. (2014). 유아기 어머니의 놀이성, 놀이지지신념 및 양육스트레스가 친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4)*, 571-585.
- 김지은 (2012).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호 (2008).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윤 (2007). 인지발달 과정의 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음악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현정, 최미숙 (2017). 아버지 양육참여도 수준에 따른 유아의 성역할 개념 및 창의성 차이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21.
- 노영숙 (2012). 부모의 놀이 참여 수준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윤미 (2006).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놀이참여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레미, 조수철, 김봉년, 김재원,& 신민섭 (2010). 아동기 실행기능의 발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1-12.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한국육아지원학회, 8(2)*, 47-64.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한국육아지원학회, 8(2)*, 47-64.

- 문성영, 심성경 (2020).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 12(1)*, 163-189.
- 문성희 (2019).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예은, 도현심 (2018). 학령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11)*, 161-162.
- 박광균 (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2013).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박익새 (2012).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울미, 조광현 (2017).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1(1)*, 633-653
- 배정민, 김소향 (2016).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5(3)*, 23-49.
- 백선정, 김희화 (2020).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수준 및 놀이참여태도의 인과적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6)*, 36-37.
- 백선정 (2020).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수준 및 놀이참여태도의 인과적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선, 최진숙, 광경화 (2020). 부모의 놀이참여태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2)*, 79-105.
- 백현주 (2019). 유아 전두엽 기능 발달의 영향요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손애리 (2022).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에 의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은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선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2014). 만 4세 남녀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효숙 (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이나 (2019). 부모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욱, 우주영 (2013). 치료놀이를 적용한 요리활동 부모교육이 한부모가정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7(1), 69-94.
- 양다솜, 심혜원 (2021).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모의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14(1), 1-29.
- 여운재, 황혜신 (2019).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수준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15(1), 107-125.
- 오남희 (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아동연구 2(-)*, 139-141.
- 위영희 (1983). 아버지-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아동학회, 4(-)*, 23-35.
- 유란희, 김선희 (201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38(2)*, 67-79.
- 유지현, 박정현 (2018). 남녀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MeFOT 창의인성연구, 6(1)*, 65-84.
- 윤상인 (2011). 맞벌이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2세 영아의 놀이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서희,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5(4)*, 199-222
- 이도윤, 양난미 (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21(1)*, 47-68.
- 이미현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22(3)*, 191-206.
- 이성숙 (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연, 위영희, 유재령, 정윤주, 이영애,& 김리진 (2018). 영유아 부모의 놀이참여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1(4)*, 491-507.
- 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자극 평가와 실행기능 결합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3)*, 581-599.

- 이영환 (2014).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아동발달*. 과주: 교육과학사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 37(12), 79-89.
- 이영환 (2016). 우리나라 아버지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59-78.
-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32(1), 13-26.
-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서현아 (2022). 늦둥이 자녀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42(2), 233-259
- 이현진 (2013). 억제통제와 마음이론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93-311.
- 이희진, 이진희 (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2(7), 725-736.
- 전숙희, 이희선 (201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5), 115-136
- 전혜영 (2018).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 35(1), 257-282.
- 정선희 (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05). 연령,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8(-), 241-259.
- 정은주, 최외선 (2006).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변화가 아동의 문제행동

-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심리학적 미술치료 사례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13(2), 255-285.
- 조성희 (201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리더십이 유치원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9(5), 171-191.
- 지진미 (201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숙, 김광웅 (2018).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15-138.
- 채영문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채영문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최경순 (1993).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논문집*, 36(1), 269-309.
-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5(1), 313-332.
- 최소연 (2017). 아버지의 자녀놀이 신념 및 자녀놀이 참여가 유아의 학습관련기술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석, 임지영 (2021).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능력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가정학회*, 59(1), 71-82.
- 최은아 (2013).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주 (2004).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아버지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 최혜순, 이미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척도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297-321.
- 최혜정, 이동귀 (201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신념과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36(3), 1-18.
- 최화자, 이하원 (2019).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사회복지연구*, 9(2), 77-94.
- 최효원, 김낙홍 (2021). 아버지와 유아기 자녀의 거친 신체놀이의 의미 탐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4), 75-105.
- 한미자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정현, 심미경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1(1), 19-31.
- 홍유정, 한세영 (2020).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와 양육참여 및 리더십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동학회지*, 41(2), 103-115.
- 홍혜미 (2018).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미, 문혁준 (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 44(2), 83-91.
- 황혜련, 송현주 (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 Anderson, P. J., & Reidy, N. (2012). Assessing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

- s. *Neuropsychology Review*, 22(4), 345 - 360. <https://doi.org/10.1007/s11065-012-9220-3>
- Bell, M. A., & Wolfe, C. D. (2004). Emotion and cognition: an intricately bound developmental process. *Child Development*, 75(2), 366 - 37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79.x>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onstein, P., & Cowan, C. P. (Eds.). (1988).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John Wiley & Sons.
- Cacioppo, J. T., & Berntson, G. G. (1999). The Affect System: Architecture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8(5), 133-137. <https://doi.org/10.1111/1467-8721.00031>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53 - 72.
- Carlson, S. M. (2003). Executive function in context: Development, measurement, theory, and experienc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8(3), 138-151.
- Cole, P. M., Dennis, T. A., Smith-Simon, K. E., & Cohen, L. H. (2008).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self-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8(-), 324 -352.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https://doi.org/10.1023/A:1024413120001>

doi.org/10.1023/A:1024426431247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11-343. doi:10.1300/J002v34n03_0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doi:10.1207/s15327965pli0904_1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 - 1134. <https://doi.org/10.1111/1467-8624.00337>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S. (2002).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1*(2), 121-128.
- Eisenberg, N., Spinrad, T., & Smith, C. L.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Its conceptualization,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and socialization. *In The Regulation of Emotion (pp. 281-31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doi.org/10.4324/9781410610898>
- Fein, G. G. (1981). Pretend Play in Childhood: An Integrative Review. *Child Development, 52*(4), 1095 - 1118. <https://doi.org/10.2307/1129497>
- Fisher, J. C., & Mason, R. L. (1981). The analysis of multi collinear data in criminology. In J. A. Fox (Ed.), *Methods in quantitative criminology* (pp. 99-125). NY: Academic Press.
- Gioia, G., Isquith, P., Guy, S., & Kenworthy, L. (2000). BRIEF-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Professional manual. Odessa: Psychology

gical Assessment Resources.

- Gluck, Mark A, Mercado, Eduardo, & Myers, Catherine E (2011). Learning and memory: from brain to behavior. (Choi ,June-seek, Kim, Hyun-taek, Shin, Maeng-sik Trans), Seoul: Sigma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8).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anziano, P. A. (2009).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Hot" executive functions across early childhood: Contributions on maternal behavior and tempera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North Carolina.
- Greenberg, M. T., & Snell, J. L. (1997). Brain development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teaching in organizing the frontal lob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93 - 126). Basic Books.
- Gross, J. J., & Thompson, R. A. (2007). Emotion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3-24). New York: Guilford.
- Ivcevic, Z., & Brackett, M.A. (2014). Predicting school success: Comparing Conscientiousness, Grit,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2*, 29-36.
- Izard, C. E., Fantauzzo, C. A., Castle, J. M., Haynes, O. M., Rayias, M. F., & Putnam, P. H. (1995). The ontogeny and significance of infants' facial expressions in the first 9 month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 997-1013.

- Joormann, J., & Gotlib, I. H. (2010). Emotion regulation in depression: relation to cognitive inhibition. *Cognition & emotion*, *24*(2), 281 - 298. <https://doi.org/10.1080/02699930903407948>
- Joormann, J., & Gotlib, I. H. (2010). Emotion regulation in depression: Relation to cognitive inhibition. *Cognition and Emotion*, *24*(2), 281-298. doi:10.1080/02699930903407948
- Kochanska, G., & Aksan, N. (2006). Children's conscience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87 - 1617.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21.x>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e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1 - 26). John Wiley & Sons Inc.
- Landry, S. H., Miller-Loncar, C. L., Smith, K. E., & Swank, P. R. (2002). The role of early parenting in children's development of executive process.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1*, 15-41. doi:10.1207/S15326942DN2101_2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doi:10.1111/1467-8624.00124
- Lovas G. S. (2005). Gender and patterns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todd

- ler and father-toddler dyad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4)*, 327 - 353. <https://doi.org/10.1002/imhj.20056>
- Lucassen, N., Kok, R., Bakermans-Kranenburg, M.J., van IJzendoorn, M.H., Jaddoe, V.W., Hofman, A., Verhulst, F.C., Lambregtse-van den Berg, M.P., & Tiemeier, H. (2015). Executive function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practices.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489-505.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doi:10.2307/1129996
- Moriguchi, Y. (2014). The early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and its relation to social interaction: *A brief review. Front Psychology*, *5*. 388. doi:10.3389/fpsyg.2014.00388
- Parke, R. D., & Tinsley, B. R. (1981). The father's role in infancy: Determinants of involvement in caregiving and play.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429-457). New York: John Wiley & Sons.
- Ribner, A., Devine, R. T., Blair, C., Hughes, C., & NewFAMS Investigators (2012). Mothers' and fathers' executive function both predict emergent executive function in toddlerhood. *Developmental science*, *25(6)*, e13263. <https://doi.org/10.1111/desc.13263>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doi:10.1016/j.cresq.2011.08.001

- Scharfe, E. (2000). Development of emotional expression,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pp. 244 - 262). Jossey-Bass.
- Tamis-LeMonda, C. S., Shannon, J. D., Cabrera, N. J.,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 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 - 182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8.x>
- Schaefer, C. E. & Drewes, A. A. (2014). *The therapeutic powers of play: 20 core agents of change*. Wiley and Sons.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 - 52.
- Torres, N., Verissimo, M., Monteiro, L., Ribeiro, O., & Santos, A. J. (2014) Domains of father involvement, social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amily Studies, 20*(3), 188-203
- Ward, C.D. (1994). Adult Intervention: Appropriate Strategies for Enriching the Quality of Children's Play. *Young Children, 51*, 20-25.

부 록

1. 설문지 안내문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 (19문항)
3.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척도 (17문항)
4.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24문항)
5. 유아의 실행기능 (63문항)

부록 1. 설문지 안내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본 설문지는 반드시 아버지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문항은 각 문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 맞고 틀리거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껴지는 답을 하나만 골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읽은 후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대로 빠른시간 안에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 혹여나 선택에 대해 망설여진다고 하더라도 누락없이 본인에게 가장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거나 중복체크(2개이상의 답에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응답한 모든 내용이 무효화 되므로 빠짐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자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00월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오지현
연구자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 김찬미

● 다음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만 3~5세의 유아 중 한 명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녀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자녀의 성별 : ① ()남 ② ()여
2. 자녀의 연령 : 만 _____ 세
3. 자녀의 형제 유무: (1)외동 (2)형제있음

● 다음은 아버님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 : 만 _____ 세
2. 귀하의 최종학력
 - ① ()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 고졸
 - ③ () 전문대졸 ④ () 대졸 ⑤ () 대학원 이상
3. 아버지의 근무시간 1) 평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2) 주말 하루 평균 _____ 시간
4. 맞벌이 유무: (1)맞벌이 (2)외벌이
5. 귀하께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평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 2) 주말 하루 평균 _____ 시간

※ 이하의 문항들에서도 위에서 선정하신 자녀로 대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 (19문항)

● 다음은 아버님의 양육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 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놀이터, 놀이공원, 동물원 등에 가서 함께 놀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와 함께 자전거타기, 등산하기, 산책하기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 함께 영화, 연극, 공연, 전시 등을 보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른들께 인사하는 법과 예절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것을 계속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정하여 행동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선택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관련된 정보를 함	①	②	③	④	⑤

	께 찾아본다.					
11	자녀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부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부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내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양육과 교육 관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 (예: 사진기술, 동영상편집, 자녀와의 대화법 등)	①	②	③	④	⑤
17	아버지 교육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녀양육에 대해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멘토를 정해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9	좋은 아버지 되기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척도 (17문항)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아버님께서 자녀와 같이 놀이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놀이를 하고 싶은 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평상시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놀이 중에 아이의 기분 변화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지(역할, 도움, 반응 등)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가 놀이에 집중할 때는 아이를 그냥 조용히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떤 놀잇감을 고를 때 그것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할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놀이할 때 흥미를 보이는 대상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놀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거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가 놀이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 긍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말(칭찬, 공감, 격려)을 해준다.					
11	아이가 놀이에서 보여주는 신호(예 : 얼굴표정, 동작, 의성어 표현 등)에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와 놀이할 때 내 목소리나 행동을 아이의 기분에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와 함께 집중해서 논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가 즐기는 놀이라면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다(낮선 싸움놀이, 딱지치기 등).	①	②	③	④	⑤
15	아이의 눈높이(놀이수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논다.	①	②	③	④	⑤
16	바빠도 아이와의 놀이시간은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즐겁게 놀이를 시작해서 즐거운 기분으로 마무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24문항)

● 다음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 읽으시고 자녀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칸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는 명랑한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는 기분이 금방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기분을 미리 짐작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는 어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불안해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다른 활동으로 옮겨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시무룩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이)는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는 또래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8	○○(이)는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이)는 자신의 욕구가 바로 채워지지 않아도 채워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별을 받는 것을	①	②	③	④	⑤

	보고 재미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한다.					
11	○○(이)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예 : 매우 활동적인 놀이상황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는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귀찮게 들러붙는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는 에너지가 넘치고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는 어른들이 “안 돼”라고 말하거나 행동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는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무섭고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는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7	○○(이)는 놀이에 다른 아이를 끌어들이려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고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는 표정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거나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는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는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이)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인 감정(예 : 화, 두려움, 좌절, 괴로움)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는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5. 유아의 실행기능 (63문항)

● 다음은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아의 일상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
 어보신 후 평소 유아를 관찰하신 것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
 르시면 됩니다.

번호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작은 문제에 과잉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	두 가지 일을 주면, 한 가지만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3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을 질서 없이 놓고 제대로 못 치운다.	①	②	③	④
5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면 폭발적으로 감정을 분출한다.	①	②	③	④
7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동들(한 번에 한 조 각씩 맞추기, 보상을 받기 위해 청소하기 등)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멈 춘 후에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웃는다.	①	②	③	④
9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하겠다고 말한 과제도 스스 로 시작하지 못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0	새로운 사람들(부모, 교사, 친구 또는 유아교육기 관 직원 등)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너무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2	게임, 퍼즐, 놀이 활동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또래 아이들보다 더 주의해서 감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보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을 잊는다.	①	②	③	④
15	계획 또는 일과의 변화(일상 활동의 순서, 갑자기 추가되는 일, 스케줄 변경, 시장가는 길을 바꾸는 것 등)에 불쾌해한다.	①	②	③	④
16	별 이유 없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7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같은 실수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①	②	③	④
18	(생일파티, 놀이상황 등의) 모임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바보스럽게 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구체적으로 지시해도 옷, 신발, 장난감, 책 등을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0	새로운 장소나 상황(먼 친척이나, 새로운 친구의 방문 등)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21	기분이 자주 변한다.	①	②	③	④
22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도 어리석은 실수를 한다.	①	②	③	④

23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4	잠, 식사, 놀이 활동 등의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큰 소음, 밝은 빛 또는 특정 냄새를 불편해한다.	①	②	③	④
26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7	두 가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28	충동적인 아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9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난관에 빠진 어려운 과제를 완료해야 할 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30	환경(새로운 가구,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이동 또는 새로운 옷 등)의 변화에 불안해한다.	①	②	③	④
31	울음 또는 폭발적인 분노를 갑자기 멈춘다.	①	②	③	④
32	과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3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4	어지럽힌 것을 치우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도 치우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35	활동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36	다른 아이들보다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37	활동 도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잊는다.	①	②	③	④

38	어떤 활동은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9	어떤 과제수행 중 주변상황의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 주제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40	낮선 사회적 행사(생일파티, 소풍, 명절 모임 등)에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41	일상적으로 매일하는 활동에서 쉽게 압도되거나 너무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42	과제(게임, 퍼즐, 가장놀이 활동 등)를 끝내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3	또래 아이들보다 더 통제가 안 된다.	①	②	③	④
44	명확한 지시를 주어도 방이나 놀이공간에서 물건을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5	하루 일과, 음식, 장소 등의 변화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46	문제가 발생하면, 오랫동안 실망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47	같은 주제로 지속해서 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8	대화나 놀이를 할 때 너무 시끄럽다.	①	②	③	④
49	지시를 해도 과제를 완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0	사람이 많고 바쁜 상황(많은 소음, 활동 또는 사람들 같은)에서 과도하게 압도되거나 흥분된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51	지시를 해도 활동이나 과제를 시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2	행동이 너무 과격해서 통제가 안 된다.	①	②	③	④
53	활동 시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4	지시를 해도 행동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55	사건, 사람 또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끝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6	과제 또는 활동을 너무 빨리 끝낸다.	①	②	③	④
57	자신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8	활동하는 동안 쉽게 이탈한다.	①	②	③	④
59	잠시만 지나도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60	바보스럽게 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1	주의 지속 시간이 짧다.	①	②	③	④
62	다칠 수도 있는 상황(놀이터, 수영장과 같은)에서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게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63	과제를 할 때 자신의 수행이 맞는지 틀린지 의식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